

노인의 공적,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원경혜¹, 이상혁^{2*}

¹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²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융합공학과

Effects of the Elderly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Kyeong-Hye Won¹, Sang-Houck Lee^{2*}

¹Industri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²Department of Integrated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아노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적이전소득 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과 공적이전소득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적이전 소득 중 민간 개인보조금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적이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이전소득 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대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in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y influence to understand. Analysis of the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Study the following points were discussed. First, the elderly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s in accordance with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was significant. Second, private transfers from children in public transfer income subsidies and the more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respectively. Third, the private sector of private transfers. Individual grants fewer higher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elderly a chance to increase the self-esteem that was found. Therefore, a more practical and should be supported by specific public transfer system.

Key Words : public transfer income, private transfers income,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1. 서론

한국 사회는 2000년7월 노인인구 비율이 7.1%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로 되어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한다[1]. 2030년이 되면 인구의 24.3%인 1,181만 명이 노인이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6%를 넘어 선다 [2].

이런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재정 부담을 늘려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경제 파괴 등의 문제를 양산 할 것이다. 각국의 연구 발표도 한나라의 인구에서 25%가 65세 이상이 되면 그 나라의 평균 생활수준이 18%정도 하락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은 국민 전체 평균 소득의 62%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90%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1/2정도는 45.6%밖에 되지 않아 빈곤층으로

*Corresponding Author : Sang-Houck Lee(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

Tel: +82-2-2059-2351 email: Isen@hoseo.edu

Received January 13, 2015

Revised (1st April 30, 2015, 2nd June 10, 2015)

Accepted June 11, 2015

Published June 30, 2015

분류 된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노인 빈곤율인 13.5%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개인생활주기론에 볼 때 취업 기간인 20세 후반부터 60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지만, 60세를 전후하여 건강문제와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게 되며 원하는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다[3]. 이처럼 노인은 빈곤에 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취약하고 빈곤에 처하게 될 경우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노인의 빈곤을 예측하기 위해 [3]이 발표한 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부담이 60.1%이며, 그 중 근로·사업소득이 50.9%, 연금·퇴직금이 27.6%, 재산소득이 12.4%, 예금이 9.1% 수준이었다. 또한, 노인의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인 사적이전소득은 32.0%로 나타났다.

노인이 퇴직이나 고령으로 소득을 상실하면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사적이전소득의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공적 이전소득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노인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율은 높았지만, 공급 주체인 자녀의 가족부양 의식은 낮아지고 있다. [4]는 산업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운 가족구조와 부양인식의 변화가 실태라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이 2002년 71.1%에서 2006년에는 63.0%, 2008년에는 41.0%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5]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공적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후 복지 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 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 이전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2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6]에 의하면 공적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민연금 성숙으로 말미암은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긍정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공적연금이 노인의 빈곤완화에 상당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공적연금 수급 전후 빈곤율 차이는 10.2%에 달해 공적연금의 빈곤율 경감 효과는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율은 19.8% 남아 있으며, 수급 후에도 노인 빈곤 가구주 1인당 37만 9천 원의 빈곤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은퇴 후 경제적 상실은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 절망 등을 낳으며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원하지만 노인의 활동을 지해주는 기반이 약하고, 신체 기능의 상실로 인해 지난 세월 살아온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현상을 보일 수 있다[7].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노인의 정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연구와 몇 가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얼마나 구축하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8]. 둘째, 그동안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 규명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가 빈곤감소 효과보다는 노인의 공적·사적이전소득 수준에 따라 노인의 정서적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을 함께 고려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중요성과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들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삶의 만족도, 자존감 등 개인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용어의 조작적 정의

아래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모두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변수에 따르는 정의이다.

2.1.1 노인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법에는 경로법이나 국민연금의 수혜시기인 65세를 노인이 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생활 보호법 제3조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의탁 노인이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도 65세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노인은 65세를 적정 나이로 하였다.

2.1.2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자녀로부터의 보조금은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되며, 민간 개인보조금은 친척, 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 사회단체, 회사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의 총금액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적이전소득 중 자녀로부터의 보조금과 민간 개인보조금을 사적이전 소득으로 본다.

2.1.3 공적 이전소득

사회보험 제도 중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우체국 직원연금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 하여 수급 및 가입 실태를 파악하여, 공적 이전소득으로는 공적 연금 부분만을 취급한다. 즉 국민연금 등을 말한다.

2.1.4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복지 패널의 자료에 준하여 노인의 건강, 가족의 수입, 환경, 관계, 직업, 여가 등에 대해서 노인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삶의 만족도로 정의 하였다.

2.1.5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복지 패널의 자료에 기준으로 하였다.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자랑 할 것이 별로 없다.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노인의 자존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와 존경,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2.2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의 개념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제도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 와 공공부조, 사회수당, 비용 할인 및 세금감면 등이 있다[9]. 사회보험 제도 중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직원연금 등이 포함된다.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하고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노령에 이르면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정책이다. 한마디로 공적이전소득은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전한다는 의미이다.

공적연금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주는 활동이라고 하였다[10]. 이에 따른 노인의 공적연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연금수령여부를[11]의 자료에 따라 알아보면, 55~79세 인구의 45.8%가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남자 51.1%, 여자는 41.1%가 연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38만 원으로 연금수령자의 82.8%가 '50만 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0만 원 미만' (43.4%)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자 수령자의 25.6%, 여자 수령자의 62.7%가 '10만 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 원 이상' 수령자의 비중은 7.2%로서 전 년 동 월 대비 0.4% 상승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0%, 여자는 2.0%를 나타냈다. 또한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은 2012년 65.2%에서 2013년 68.4%로 증가 하였다[11].

2.3 노인의 사적이전소득의 개념

사적이전소득에는 자녀로부터의 보조금과 민간 개인보조금이 있다. 자녀로부터의 보조금은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되며, 민간 개인 보조금은 친척, 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 사회단체, 회사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금의 총액을 말한다[12].

현금이전은 가족 및 사회적 보조를 뜻하며 현물이전은 음식, 거주보조 및 에너지 보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족 중심의 노인 부양문화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노후 소득 중에서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5]. 이렇게 노인 본인이 준비한 개인 소득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지원받은 소득을 사적이전소득이

라고 한다. 즉 사적이전소득 중 가족, 친구, 이웃, 단체의 현금 및 현물이전을 의미한다.

통계청[12]에서 발표 한 전국 노인대상 노인생활실태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적정생활비는 단독가구 841만 원, 노인 부부가구 1.798만 원, 자녀동거가구 3.763만 원 이었다. 노인의 경제활동에서 개인소득 중 개인 재산 소득은 '08년은 6.9%이고 2011년 9.5%'로 2.6%증가 하였다. 사업소득은 '08년 11.8%에서 11년도 9.5%'로 2.3% 감소하였고, 근로 소득은 '08년 6.5%에서 11년도 7.4%'로 0.9%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가구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사적이전 소득이 39.85%로 가장 많고, 근로소득 23.5% 재산소득 8.7%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적이전소득이 3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08년 대비 사적이전소득(private income transfer)'은 감소(46.5% →39.8%)하였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 거래되고 보조되는 사적이전소득(private income transfer)은 공적 안전망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노후보장의 기능을 가장 크게 담당했던 경제 형태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주 수입원은 자녀 또는 친지 지원이 가장 높다.

이 수준의 사적이전소득도[13,14,15,16]이 발표한 바로는 은퇴와 노후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1980(75.6%)에서 1995년(56.65%)에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58.5%), 2005년(62.4%)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그 이후의[17]의 자료에 의하면,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2.4 삶의 만족도의 개념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서 일정한 욕구나 목표에 도달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말한다.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도는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주위 환경과 잘 적응하여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하게 할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2.5 자존감의 개념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존경, 자신에 대한 가치 및 자신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포함된 개념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포부와 객관적인 사회적 자극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17]. 자아개념은 자존(Self-esteem)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신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동기, 가치관이 개인의 심리현상 속에서 자기를 지향하는 하나의 평가적 개념, 또는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성공적이고 자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한다[18].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소의 2010년 한국복지 패널조사 5차 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 가구에는 지역적으로 제주도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전국 대표성을 띤다. 2010년 5차 웨이브의 조사 대상 가구는 4차 웨이브에서 조사 완료된 6,207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의 경로법이나 국민연금의 수혜시기인 65세를 노인이 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인 3,86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2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 사회학적 특성, 사적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삶의 만족도, 자존감으로 구성되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5차년도 자료에서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관련 문항으로 조사내용은 '건강만족도', '가족수입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가족 관계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이다. 이 항목은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만족'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 중 주거환경 만족도는 가구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구원 외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 만을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표기

하도록 하였다. 직업만족도에서는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정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α 값은 0.76이다[19].

한국 복지패널에서 사용한 자존감 측정 항목들 M.Rosenberg가 자존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존감 (self-esteem)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0.85였으며, 여러 연구로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서 긍정적인 문항이 5문항, 부정적인 문항이 5문항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되어 있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며,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존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a 값은 0.72이다.

3.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패널 자료를 활용해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적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 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자존감의 차이검증은 t-test와 아노바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의 관계는 t-test와 아노바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들에 대한 규명은 회귀분석을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사적·공적 이전소득수준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노인의 정서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선행 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는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은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사적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

으로 나누었다. 그 체계나 소득의 정도가 다름으로 영향 관계가 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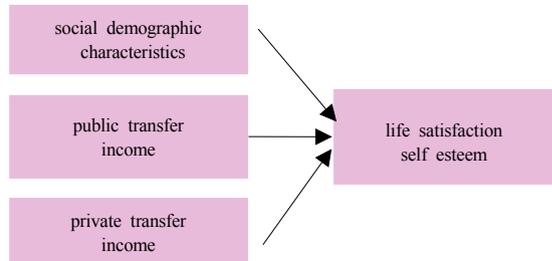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2 연구 문제 분석

4.2.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변수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의 차이와 영향관계를 알아본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취업유무, 종교, 주거 점유 형태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9.6%, 여자가 60.4%로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 보다 21.2% 더 많았다. 나이의 범위는 65세에서 103세까지로 평균 나이는 75세였으며, 70에서 79세가 전체 대상자의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이 30.5%이고 초등학교 졸업이상 이 69.5%로 대체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노인들이 시대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것이 59.6%로 배우자 없음의 40.4%보다 19.2% 더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이 1.6%이고, 건강이 21.3%이며, 보통이 26.6%, 나쁨이 43.4%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나쁨도 7.1%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개인이 느끼는 건강 상태로 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었다. 취업 여부는 취업이 27.2%이고, 비 취업이 72.2%로 취업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60.6%로 종교 생활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 39.4%보다 21.2% 더 높았다.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 비자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가 66.0%, 비자가 34.0%로 자가의 비율이 32.0% 더 높았다.

4.2.2 연구 대상자의 공적이전소득

연구대상자의 공적 이전소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공적 이전소득의 4대 보험의 가입·수급 여부를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은 총 3,862명 중 1,023(26.5%) 명이 가입하였으며, 그 중 1,000(97.8%) 명이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39(73.5%)명이 미 가입 상태이며 23(2.2%) 명이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수급액은 314,135 원으로 분석되었다. 공적연금의 가입은 1,023명 중 777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공무원연금 117명, 기타(사립학교교원 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에는 129명이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여부는 총 136명 중 18(13.2%)명이 가입해 6(33.3%)명이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18(86.8%)명이 미가입이고, 12(66.7%) 명이 미 수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평균 수급액은 4 백 9만 원이었다.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 여부는 총 287명 중 92(32.1%)가 가입하여 8(8.7%)명이 수급 중이며, 195(67.9%)명 미가입이고 84(91.3%)명이 미수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수급액은 2천5백만 52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및 수급 여부의 총원은 3,862명이었으나, 무응답과 결측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인원으로 분류하여, 고용보험은 136명을 산재보험은 287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낮은 가입과 수급 빈도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에서는 제외를 했다.

건강보험 가입여부는 총원3,862명 중 3,467 (98.8%)명이 가입하고, 395(10.2%) 명이 미 가입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최근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진료비 보장과 질병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을 확대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가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은 수급이 아닌 각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용 여부로 판단한다.

4.2.3 연구 대상자의 사적이전소득

대상자의 사적이전소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구원이 아닌 부모로부터의 보조금은 총인원 3,862명 중 70(1.8%)명이 보조를 받고 있고 3,772 (98.2%) 명은 받지 않았다. 대상자의 월평균 보조금은 40만6,000원 정도였다. 가구원이 아닌 자녀로부터는 총인원 3,862명 중 3,180 (82.3 %) 명이 보조를 받고 있으며, 682(17.7%)명

이 보조를 받고 있지 않았다. 월 평균액은 390만 3,800 원이고 표준편차가 550.73으로 각 개인마다 편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은 3,578(92.6%)명이 보조받고 있었으며, 월평균 보조금은 46만 8,100원이었다. 총 대상자 중 자녀로부터의 보조금과 민간·개인 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각각 82.3%와 92.6%로 아주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인의 소득이 대부분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한다는 [2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4.2.4 연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연구대상자 삶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자 삶의 만족도 정도는 총점범위 8에서 40점으로 최소값 11점, 최대값 39점, 평균은 25.71점, 표준편차는 4.03이었다. 이 결과는 대상자 삶의 만족도 결과가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며, 그다지 높지 않았다.

Table 1. life satisfaction of the subject
(total range 8 to 40)

factor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d
life satisfaction	11,00	39,00	25,71	4,03

4.2.5 연구 대상자의 자존감

연구 대상자의 자존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에서, 자존감 정도는 총점범위 10점에서 40점으로 최소값 13점, 최대값 40점, 평균 28.35점, 표준편차 4.32로 중간 정도 수준의 자존감 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2. self-esteem of the subject
(total range 8 to 40)

factor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d
self esteem	13,00	40,00	28,35	4,32

4.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T-test, 아노바 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노인 삶의 만족도 정도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근로, 종교,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26.03점, 여자가 25.50점으로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21]의 남자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나이는 65~69세가 26.25점, 70~79세가 25.66점, 80세 이상 24.93점이고, 나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65~69세가, 그 다음이 70~79세가 이후는 80세 이상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22]의 연구결과와 같다. 교육 정도는 무학이 24.90점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고, 초등학교 졸업 이상이 26.06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23]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 배우자가 26.09점, 무 배우자가 25.17점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요즘 자녀 부양에 대한 기대저하 및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 증대, 배우자의 중요성 증대 등의 변화가 지속적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이 28.15점이고, 건강이 27.98점, 보통이 26.33점, 나쁨이 24.49점, 아주 나쁨이 21.82점으로 집단 간의 차이검정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근로 유무는 근로 26.56점, 비근로 25.37점으로 일을 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종교는 있는 노인이 25.95점이고, 없는 노인이 25.34점으로 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거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자가 26.37점, 비자가 24.4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본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아노바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노인의 자존감 정도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근로, 종교, 주거 점유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낮

다. 성별로는 남성이 28.92점, 여성이 27.98점으로 남성이 더 자존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65~69세가 29.33점, 70~79세가 28.28점, 80세 이상이 26.97점으로 80대가 가장 낮은 자존감 수준을 보였으며, 60대가 가장 높은 자존감을 나타냈다. 교육은 무학이 27.06점, 초등학교졸업 이상이 28.89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서도 유배우자가 29.05점, 무배우자 27.31점으로 유배우자가 1.74점 높은 자존감을 나타냈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건강이 악화하면 일상 생활에 대한 타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은 자존감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유무는 근로가 29.69점, 비근로가 27.08점으로 일을 할 때 더 자존감이 높았다. 이는 [2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종교는 ‘있음’이 28.55점, ‘없음’이 28.03점으로 종교가 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거 유무는 자가 29.05점, 비자가 26.97로 집을 소유 했을 때가 자존감이 더 높았다.

4.2.8 연구대상자의 사적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 자존감

연구대상자의 사적이전소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아노바를 이용해 차이를 비교했다. 총인원 3,862명 중 보조받는 노인은 3,566명, 92.3%이고 자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296명, 7.7%이다.

자녀보조금에 대한 삶의 만족도 결과를 보면, 250만원 미만 1,794명, 3.19점, 250-500만 원 미만 705명, 3.20점, 500-1,000만 원 미만, 787명, 3.25점, 1,000-2,000만 원 미만 280명, 3.30점으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보조금이 많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집단 간 평균은 3.21점이고 표준편차도 0.50으로 집단 분포도 고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보조금에 대한 자존감은 총원 3,566명 중 250만원 미만 1,793명, 2.81점, 250-500만 원 미만 705명, 2.84점, 500-1,000만 원 미만 787명, 2.86점, 1,000-2,000만 원 미만 281명, 2.92점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은 2.83점으로 중 정도의 자존감 수준이며, 표준편차가 0.43으로 집단 내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집단 간 노인의 자존감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민간 보조금은 총인원 3,329명 중 3만 원미만이 1,386명,

2.86점, 3-30만 원 미만 998명, 2.83점, 30-2,000만 원 이하 945명, 2.78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집단 간 평균은 2.83점으로 중 정도의 자존감 수준을 알 수 있으며, 표준편차가 0.43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자존감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2.9 연구대상자의 공적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 자존감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삶의 만족도, 자존감을 알아보기 위해 아노바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범위 42만 원에서 960만 원의 연속 변수를 세 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공적 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을 하였다.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총인원 3,599명 중 50만 원 미만 2,216명, 평균 3.12점, 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689명, 평균 3.28점, 200만 원 이상 694명, 평균 3.45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급액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의 평균은 3.21점으로 중 정도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표준편차가 0.50점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이다. 이는 유의수준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공적 이전소득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총원 3,599명 중 50만 원 미만 2,216명, 2.77점, 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689명, 2.88점, 200만 원 이상은 694명, 3.01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의 자존감이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재정적 감소는 자아 가치를 상실한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집단 간 총 평균은 2.83점으로 중 정도의 자존감을 나타냈다.

4.2.10 공적,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적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성별은 남자 0, 여자 1, 교육은 무학 0, 초등학교졸업이상 1, 배우자 유무는 유배우자0, 무배우자 1, 취업은 취업 0, 비 취업 1, 종교는 있다 0, 없다 1, 주거점유 형태는 자가 0, 비자가 1로 더미로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Table 3.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the effect of self-esteem (total number =3,862)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B	β	B	β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0.029	0.004	0.905	0.106
	Age	0.068	0.083	0.019	0.019
	education	-0.107	-0.012	0.351	0.034
	marriage	0.378	0.050	-0.297	-0.033
	health	-1.476	-0.390***	-1.400	-0.311***
	work	-0.880	-0.125**	-1.213	-0.145**
	religion	-0.613	-0.086	-0.137	-0.016
private transfer income	children	-0.001	*0.130	0.001	0.078
	private	0.004	0.024	0.001	0.004
public transfer income	public	0.004	0.031	0.016	0.112*
F		8.699***		6.740***	
R^2		0.193		0.156	
ΔR^2		0.171		0.133	

P<0.05 , p<0.01 ,p<0.001
dummy variable : gender- male 0, female 1, education -uneducated 0,junior 2-year college or higher 1, spouse- married 0, single 1, employe-,employed 0 unemployed 1, religion- yes 0, none 1, housing tenure type-own 0, not own 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1개의 변인 중에서 건강상태는 표준화된 베타 값이 -0.390으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취업은 -0.125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녀 보조금에서는 0.130의 표준화된 베타 값을 보이며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3개의 변인이 삶의 만족도를 17.1% 설명하였다.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 결과 건강은 표준화된 베타 값이 -0.311로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취업은 표준화된 베타 값이-0.145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에서 표준화된 베타 값이 0.112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건강과 취업이 노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2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인 국민연금과 사적이전 소득으로는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과 민간 개인보조금을 소득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5차 웨이브 중 65세 이상 노인 3,862명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아노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 하였다.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적이전 소득 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과 공적이전소득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적이전 소득 중 민간 개인보조금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삶을 지탱하는 요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적이전 소득과 자존감을 높이는 공적 이전 소득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적이전소득의 준비 없이 사적이전 소득도 없다면 노인의 생활이 매우 열악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적이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적이전체제인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미리 준비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 지금의 노인들에게는 특별한 효력이 없다. 또한 사적이전소득 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대가 필요하다. 이에 노인들도 손자녀의 육아라든가 가사를 돌보며 맞벌이하는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녀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면 삶의 만족감을 더 높일 것이다.

References

- [1] Lee Ji-ho, The Analysis of Acknowledgement Level about the Agenda and Policy Decision on the Basic Old Age Pension : with MSF as the center Korean Policy Science Studies Review, 16(1), 49~72, 2012.
- [2] Choi Yoon-sik, 2030 The Bold Future. Seoul : Knowledge Nomad, 2013.
- [3] Lee Jung-boon, "A study on Ecological Factors Causing the Aged to Attempt of Suicide Uid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jor in social work, master's thesis, 2010.
- [4]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ww.kosta.go.kr. 2011.
- [5] Lee Il-do, "A Study on Financial Plan and Successful Aging for Old Age Security", Kei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6] Kim Hee-sam, "Private Transfer Income and Old Age Security," Korea Development Research, Volume 30 Issue 1, 71-130, 2008.
- [7] Seok Jae-eun "The Effect and Efficiency of Public Pension and Basic Senior Pension : with Seoul as the center" Social Welfare Policy, Volume 37, Issue 193-214, 2010.
- [8] Gang Sung-jin, Jeon, Hyung-joon, "A Study on The Motive for Private Transfer Income and the Effect on Establishing Public Transfer Income", Public Economy, Volume 10, 23-46, 2005.
- [9] Kim Hee-sam, "Private Transfer Income and Old Age Security", Korea Development Research, Volume 30 Issue 1, 71-130, 2008.
- [10] Jung Ok-bun, Kim Dong-bae, Jung Soon-hwa, Son Hwa-hee 「A Theory of Welfare for the Aged」, 311, 2008.
- [11] Choi Sung-jae, Jang In-hyup, "A Study about Welfare for the Aged," a publishing departm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1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ww.kosta.go.kr. 2012.
- [13] Jung Hee-sun, "The Change of Social Insurance Coverage in 2005-2009" Health and Welfare Forum. 11. 2011.
- [14] Korea Welfare Panel, 2010.
- [15] Jung Ok-bun, Kim Dong-bae, Jung Soon-hwa, Son Hwa-hee, 「The Theory of Welfare for the Aged」, 315, 2008.
- [16] Jung Ok-bun, Kim Dong-bae, Jung Soon-hwa, Son Hwa-hee, 「The Theory of Welfare for the Aged」, 315, 2008.
- [17] Kim, Hee-sam, "Private Transfer Income and Old Age Social Security", Korea Development Research, Volume 30 Issue 1, 71-13.2009.
- [18]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cial Statistics Planning

[1] Lee Ji-ho, The Analysis of Acknowledgement Level

Department in Population and Social Statistics Bureau. 2012.

- [19] Gang Sung-jin, Jeon, Hyung-joon, "A Study on The Motive for Private Transfer Income and the Effect on Establishing Public Transfer Income", Public Economy, Volume 10, 23-46, 2005.
- [2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cial Statistics Planning Department in Population and Social Statistics Bureau. 2012.
- [21] Kim Dong-bae, Park Eun-haeng, Kim Sung-woong, "A Study on Asset Type and Life Satisfaction Index of the Aged", Social Welfare Policy Korea The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2009.
- [22] Lee Jung-boon, "A study on Ecological Factors Causing the Aged to Attempt of Suicide Uid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jor in social work, master's thesis, 2010.
- [23] Gong Hye-sun, "Influence Factors of Social Support and Self-Worth to the Aged Ewha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for a doctorate, 2011.
- [24] Gong Hye-sun, "Influence Factors of Social Support and Self-Worth to the Aged" Ewha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for a doctorate, 2011.
- [25] Yu Hyeong-taek, "the Effect of Factors on Self-Worth of Middle-Age Man", Myongji University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6.
- [26] Kim Jin-wook, "A Study on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of Korean Income Transfer Program, Social Welfare Policy, Volume 20, 171-195, 2004.

이 상 혁(Sang-Houck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원장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생교육원 원장
- 2012년 2월 ~ 현재 : (사)한국생활환경협회 회장

<관심분야>
생활환경 개선분야

원 경 혜(Kyeong-Hye Won)

[정회원]



- 2001년 2월 : 한국통신대학교 경제학과(학사)
- 2013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노인복지학과(석사)
- 2013년 3월~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사회복지 분야